

# 佛教新聞

nulgyo.com

千年의 香을 듣는다 .cwh.co.kr 2 054-933-6371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대표전화 (02)730-4488 제2930호



## 갈등은 부추기고 쇄신은 외면한다

'불교계 흔들기' 언론 악습 되풀이 되니

O는 10월 제34대 조계존 최모의 장 선거를 앞두고 종단이 방송, 신 알고 있다. 여기에 종합편성됐답이 가세하여서 어로이 외제경제도 노 란이 되고 있다. 종교단체의 특수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자극적인 내 용이 여과 없이 보도되면서 불교의 상에도 악역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전 포함 오어시 주지 장주스님의 도박과 관련된 일 바形 조작은 사시 과제 화이에 이 서 안 다퉈 보투했다 이에 종단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음해성 유 어비어"라고 증강 바반하고 진하여 LISTES PROTOS ATTURA MEGAS CHI 시태와 맞닿던 진위 여부와 상취업 이 보도 그 자체로 불교계에 또다 시 상처를 남겼다. 중단에 큰 현인 이 있을 때마다 왜공된 어른의 보 도캠타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 사안임에도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연결한 도단점 장대를 들이대

며 과장된 보도햄래로 종단 발전에

큰 건강동이 되고 있다 언론의 봉교 흔들기와 왜곡은 오 CHORDAGE S. BIANC CIDERUS. 이루 이하 가장 큰 상처는 지난 2007년 '신청아 사건' 보도였다 당시 신쟁이 뭐가 가짜 합위로 동 구대 교소에 보인했다는 제단근보 터 비롯된 사건은 청와대 핵심관계 자이 변약균 전 정생실장이 연루되

計 告 불교신문 법보시점제인

이러운 이웃과 포교현장에

불교신문 법보시는 또하나의 도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포고의 손감이 닿지 무리는 어려운 이웃의 포고위장에 부치난의 가곡성은 단 S. ACMED RIPER SEAS TEMPORAL HISTORY BOARD ELSE ELSE IN SERVICE.

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교환경이 양약한 교도소, 군부대, 병원 등 표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사

■ 등자기됩시업부 (02) 730-4488
■ 문자전유 (010-4157-4406

있는 즐거움을 주는 일입니다. 나눔의 기쁨에 많은 동창 당부드립니다.

불교신문을 보냅시다 [1구좌 5,000원]

여서 사회적으로 곧 바꾸어 있어. 다취근 메디웨다 메인 특기사로 괴 다 통령 중립한국인 동군대가 과 런되면서 불교계의 위상이 추락하 기도 했다. 또 일부 연혼의 과잉, 음 원선 보다로 불고제가 보다던하 전 단으로 매도되는 사태로까지 번지

일부 일방적 주장으로 '친소봉대'보도 재하

확인되지 않은 기사 종교계에는 '치명적

종단 자성과 쇄신 생명·화경보호 등 긍정적 모습은 늘 무시

강다 이에 종단은 '구동거부운동 으로 맞서며 언론사 사장의 사과를

til-OH: 이에 앞서 1980~190년대 중단의 전하이지가 간해더 시기에도 어로 의 불교회공은 개현의 방문을 장안 다. 1980년 신군부 세력에 의해 자 행된 불규제의 원대 치용 사건인 10-27번난 페이트 다시 어로들으 합돔수사본부가 내놓는 자료에만 의존한 채 불교계 전체를 부두당한

런 기사를 보도하며 불교의사은 ㅋ 게 추락했고, 불자들이 100만 명 이 상 뛰어져 나가는 등 불교계가 위 워크랜다 1084년 조타게하음 옷지 했던 비상종단은 언론의 보도로 인 해 결정적으로 무너졌다

언론은 불교 내 감동은 취소보다 하면서 불교계의 화경보호, 민준문 화유산 수호와 종단 쇄신 등의 궁 정적 활동은 철저히 외면하는 이중 점이 대도를 남이다 처하시 점성 산 새만급 등 불교계의 생명편하다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해 정부의 개발논리만 응호했으며 최근 진행 하느 좋다이 지성과 생시 경치는 원자리 외면해왔다

중단의 한 스님은 "연호에 빌리 를 제공한 점은 분명히 반성해야 SLYIDS FUR SECOND HISE ONE M 교계 현안에 대해서는 왜곡된 시선 "'아니면 말고' 식의 문지마 보도는 스님 개인은 물론 종단의 효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자효 전 SBS 논설위원실장은 "지나치계 자극점이거나 화이디지 앞으 사사은 인바됐으로 기사하면 는 것은 종교계에 큰 악영향을 미 방심"이라며 "더불어 불교계도 모 니다리를 데어로기능은 강하려 어 혼과의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

SEFT WHICH 원절철 기지 휴가보다 있는 바닷 부터 30%





내년 달력은 어디서

#### 세계평화 초석

정전 60주년을 맞아 6-25전쟁 당 시 희생자를 추모하는 세계평향함동 위령제가 지난 13일 화천군 평화의 대 곳위에서 외랜다 이번 외련제는 6-25 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화천 파로호 및 백암산 전투에서 희생된 28개구 10만 어떻이 자박들은 기기 기 위해 마련됐다. 총무원장 자승스 님은 추도사에서 "부처님께서 생명 을 가진 미물 하나라도 그 목숨을 구 하기 위해 온 몸을 회색한 것처럼 한 구저제이 차하가 마근세계지 이 때 을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 목 진력을 다하자"고 역설했다. 사진 은 평화의중 타중. ▶**관련기사 4만** 김원주 기자 codoc@bu

### "짧은 기간이지만 내실 있다"

위그 역도를 납니다는 기로쟁이 포데네 시다 리고 있는 대구, 팔공총림 동화사를 가기 위해 지난 13일 찾은 대구는 여전히 찌는 듯 했다. 최고기온이 33도로 약간 뛰어졌지만 가만히 서 있어도 뛰이 중중 흥러내렸다. 냉방시설 장 된 곳에서 차가운 음료나 수박을 먹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은 무더운 주말, 사찰을 찾아 먼 김 음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왜 사람로

동화사 국제선센터는 지난 5월 개원한 불교 문화교육 및 체험 전용공간이다. 이곳에서 12일 부터 13일까지 1박2일간 '오르막길 템플스테 이 가 역권다. 으로마지이라는 나만에서 푸기 듯이 어렵고 힘든 수행형 템플스테이를 선택한 49명이 국제선센터에 짐을 풀었다. 원래 오르막 김 템품스템이는 이미 체험한 사람들을 대상이 근 하지만 이번에는 유심자가 대기 불편다. 위

근 TV 예능프로그램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다 MBC '아빠 어디가' 와 '우리 결혼했어요' 등 에 템품스테이가 소개되면서 선품적인 인기를 골고 있다. 대학교 커플인 구진모-학해정(20. 영 진전문대)씨는 "TV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 요'를 보고 참석하게 됐다'며 "돌만의 추억을 쌓이면 불고야 저불부하다 배우 스 이유 거 건 다구 기대했다

수행이라는 테마로 진행됨에도 이번 템플스 테이에는 가족과 연인, 친구 등 다양한 계층과 서울, 부산, 영원 등 다양한 지역에서 찾았다. 픈 권 점으 세대이 화가가 많아 누건은 끊어다. 요 대전화를 반납하면서 첫 일정을 시작한 참가지 들은 방사를 배정받고 사찰예절을 배우고 사원 을 소래했다. 저넌 예불시간에 맞춰 번중투에 음라 범종을 직접 울리는 체험도 했다. 오르막 길 템품스테이의 백미는 '108배'와 '참선' 시 ■ 2013 여름수련회 현장 ① - 대구 동화사 오르막길 템플스테이

여름하여 떠오르는 것은 수려였다. 전국 사찰은 여름을 맞아 다양한 수련프로그램

을 마련했다. 보지는 을 여름 사람 수련회 अरुक्ष गृह्य व्यवसान



지난 13일 동화사 오르막길 템플스테이 혼 들이 스님의 지도에 따라 참선을 하고 있다

가 도하지 여스구자 생무스님이 치도로 와서다 에서 진행된 108배는 백팔 참회문을 1배마다 낭 독하며 하심과 더불어 사는 삶을 되새기고, 참선 은 그동안 쌓여왔던 갖가지 스트레스를 내려놓 는 기회가 됐다. 해문스님은 침략에 '기물음판' 를 쓴 뒤 "진정 궁금한 것을 제시해 발현하는 것 는 건에 대해 하네고 진주하여 무료를 해결한 소 인다"고 성명했다. 참가자들은 30분간 자세됨 바로 하고 집중했다. 호흡에 집중하고 자신이 처 한 문제에 집중했다. 심신을 괴롭혔던 무더위는

휴정조차 찾기 힘들었다. 가족과 하며 차성하 요차조(약) 보사 나위도 씨는 "1반2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마음이 뛰어 해지는 형림을 경험했다"며 "바쁜 직장생활로 고생하고 있는 큰 말과 함께 다시 오고 싶다"고 반에다 참서용 대치 참가자들은 아이로 LI이 스 박을 나눠 먹으며 또 다른 명상을 했다. '별보기 명상'은 스님과의 대화의 다른 표현이다. 내 인 에 집중했으니 이제 이를 바깥으로 표현하는 지 리다. 자신의 문제를 말하고 다른 이의 고면을 듣고 스님의 조언을 정취하며 문제를 해결해니 가는 시간이 됐다. 이렇게 산사의 밖은 강어만

동화사 테플스테이의 슬로컨은 "청마품"이다 '妄어주고(数) 마음을 풀어준다' 고 풀이된다. 마 음치유는 격자가 갖고 있는 고민과 고통을 털어 높게 하고 잘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하다. 때문에 '제대품' 은 스님과 된다 시간이 비주어 높은 건 이 특징이다. 동화사 연수국장 혜문스님은 "참 가자가 가지 스틴레스용 레스웨즈기 와세 대히 를 많이 하고 있다"며 "내실을 기례 차가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려고 노력하고 있 동화사=김하역 기지

### 담화문

### 종법 질서를 유린하는 해종 행위를 단호히 척결하겠습니다

최근 근거 없는 비반과 품로 행위로 인해 종단의 위상과 화학승가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고 인습니다. 종반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나 시장 과정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해되는 이와 같은 행위는 1700여년의 한국불교의 역사와 가깝게는 50년 통한종단 출범 이래 피와 맞으로 입군 주다이 외계야 집서 그리고 주다이 자유성은 요리하는 경주 해외이니다

중단 구성원은 종법이 정한 질서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뽄하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중법이 정한 시정 절차를 무시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극적이고 현란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폭로와 비방 행위 는 일발백제의 자세로 신속히 엄단할 것입니다.

등의 호변부는 일반적인 사장기관에 대한 각종 제소 행위, 언론을 통해 진행하는 무차별적인 제보 행위 등 외부의 힘을 빌어 종단의 자주권과 자율성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갖도 높게 임단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 해중 행위자로 간주하여 종법이 정한 과정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짓게에 회부할 것입니다

종단은 그동안 수많은 내외의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며 수행풍도를 확립하고 청정승가를 구현 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들어 종법 질서를 확립하고 해종 행위를 적결 할 수 있도록 종도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7년 7월 11일

⑥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정안

